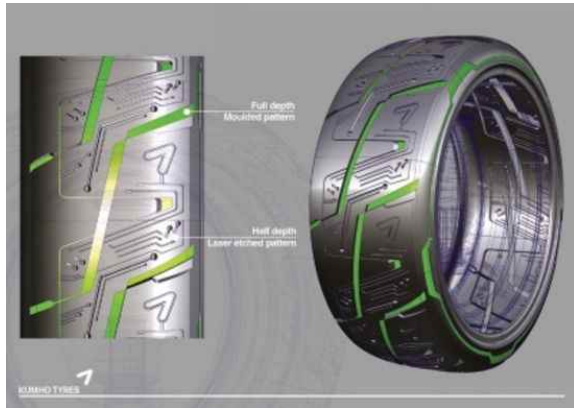


금호타이어, 세계 4대 디자인상 수상

금호타이어가 컨셉트 타이어로 독일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했다.

금호타이어는 레이저기술을 적용한 컨셉트 타이어가 세계 4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<iF 디자인 어워드 2010>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월1일 발표했다.



iF 디자인상 공모에는 39개국 1061사에서 2486개의 제품이 출품됐다.

금호타이어는 첨단연구 부문에서 컨셉트타이어를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.

전기 에너지로 빛을 만들어 가공시키는 신기술 <레이저 에칭>은 타이어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회사의 로고를 형상화한 패턴을 적용했다.

강영규 금호타이어 디자인팀장은 “금호타이어는 지속적으로 첨단 디자인 제품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”

며 “좋은 디자인이 좋은 제품이라는 공식이 타이어 시장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”라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09/12/02>